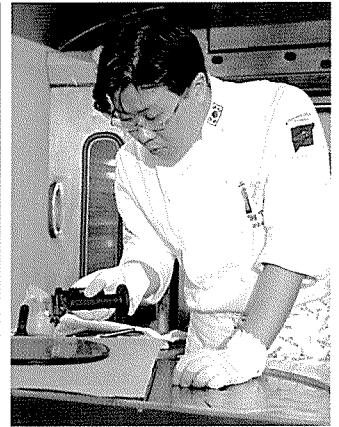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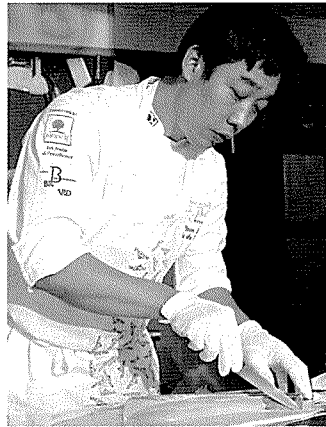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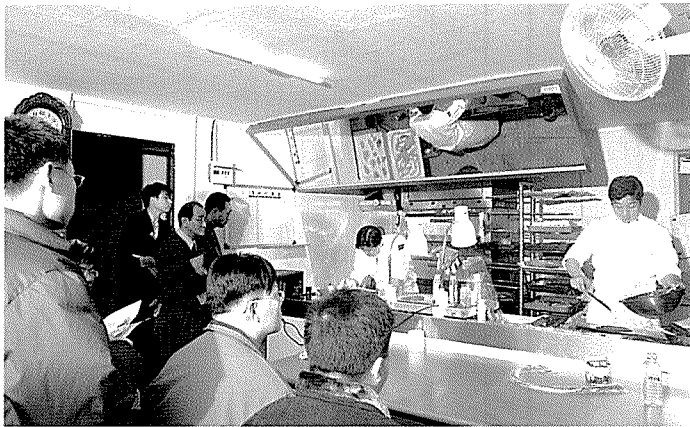


월드페이스트리컵 결산 세미나 개최

지방 4개 도시 순회 고급 공예기술 선보여



월드페이스트리컵 결산 세미나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구, 강릉, 천안, 전주 등 전국 4개 도시를 순방하며 개최됐다.

올해 초 열린 2003 월드페이스트리컵에 출전한 한국대표 정홍연, 정영택, 김영훈 씨가 각각 초콜릿공예, 설탕공예, 아이스카빙을 선보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2003 리옹에서 실연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직접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공예 작품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10일 대구에서 시작해 12일 강릉, 13일 천안, 14일 전주에서의 세미나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각 도시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공예부문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냈다.

협회 회원들은 "일반 제품이 아닌 공예 관련 세미나가 새롭고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미나에 참여한 선수들은 작품 실연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지방 제과인이 좀처럼 접하기 힘든 공예부문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창원전문대학식품축제 개최

110여 출품작 및 찬조작품으로 풍성한 대회 열려



창원전문대학식품축제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창원전문대학 문성체육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4번째인 이번 행사는 (사)대한제과협회 경남도지회, (사)조리사협회 등

경남지역 제과인 및 요리사들과 창원전문대학 학생들이 함께 꾸미는 산학협동의 한마당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식품 축제에서 제과·제빵 분야는 빵부문, 양·생과자부문, 공예부문, 데코레이션부문, 건·한과부문 등 5개 부문에서 110여 작품이 출품돼 열린 경합을 벌였다. 또한 경남지역 많은 기능장들이 찬조작품을 출품해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돋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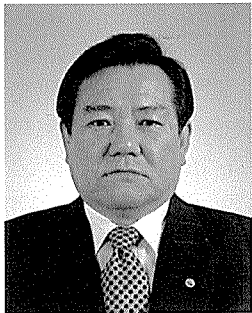
축제의 막이 오른 11월 18일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공삼포 경남도지회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이 행사장을 찾았고, 제과인을 비롯해 학생, 일반인 등 많은 관람객이 창원전문대 제과제빵과 졸업작품 및 경연대회 출품작을 둘러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경연대회는 공예부문에서 '거북선'을 표현한 이영희 씨(프랑스베이커리)가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대한제과협회

신임 사무총장 이남호 씨 임명

"회원의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는 지난 11월 20일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에 재직하던 이남호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얼마 전까지 국립목포검역소장을 역임했던 이남호 씨는故 최인수 총장의 갑작스러운 부음으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명예퇴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경동고와 한양공대를 졸업한 이남호 신임 사무총장은 복지부에서는 위생국, 보건국, 건강증진국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1999년에 국립목포검역소장으로 승진했다.

이남호 사무총장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사업계획을 착실히 수행하여 제과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협의회

추계 단합대회 개최

서울시 지회장들 모여 화합의 장 마련



서울시협의회(회장 신동균)는 지난 10월 28일 전라북도에 있는 대둔산을 등반하며 지회장들의 화합을 다짐했다. 오랜만에 복잡한 서울을 도심에서 벗어난 지회장들은 맑은 공기와 단풍으로 붉게 물들인 자연의 아름다

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일한 등산복장을 갖춰 입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지회장들은 산행을 마치고 경기 불황을 타개할 논의를 하며 서울시협의회 발전에 노력을 모았다.

양천지회

추계단합대회 개최

양천지회 발전과 화합의 장 마련



양천지회(지회장 이동택)는 지난 10월 29일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택 지회장을 비롯해 21명이 참석해 내장산을 함께 등반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회원들은 아름답게 펼쳐진 단풍을 바라보며 경기 침체에 따른 시름을 잠시 잊고 양천지회의 발전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서부지회

추계 단합대회 개최

회원들의 친목 도모로 서부지회 발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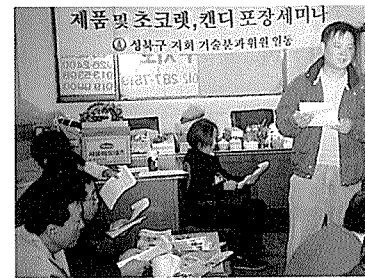


서부지회(지회장 신홍중)는 지난 11월 7일 단양팔경으로 추계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신홍중 지회장을 비롯해 26명이 참석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 서부지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가을 산행을 하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쌓은 회원들은 곧바로 충주호유람선을 타고 단양팔경의 절경을 감상하며 서울 서부지회의 발전을 모색했다.

성북지회

포장 세미나 개최

제품 및 초콜릿, 캔디 포장 신기술 선보여



성북지회(지회장 김옥수)는 지난 11월 10일 지회 사무실에서 제품 포장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북지회 기술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실연강사로 제과제빵부문 박병권·박정만 씨, 초콜릿·캔디부문 박노현 씨를 초청해 내넉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응용할 수 있는 포장 신기술을 선보였다. 올해로 4번째인 이날 세미나에는 협회 회원 42명이 참석해 마케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광주시지회

수능대비 세미나 개최

성제모주최로 화과자제품 선보여



지난 10월 28일 광주 호남제과제빵학원에서 수능 대비 화과자 제품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성화대학 호텔조리제과제빵과 출신 모임(성제모)이 주최하고 광주시지회(지회장 이기남)가 후원한 것으로 박찬회 명예장이 7가지 제품을 실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판철 광주시지회 부지회장, 정학균 식품계열학장을 비롯해 업자와 기술인 4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경기도지회

아유회 개최

여행 통해 화합의 계기 마련



경기도지회(지회장 조계중)가 10월 30일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신진도 및 간월도로 아유회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경기도지회 각 지부 지부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이번 아유회에는 여행을 통해 서로간의 화합을 다지고 대화의 장을 여는 계기였다. 또한 앞으로 지회 발전을 위한 지부장의 역할과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의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의 화합을 다지고 대화의 장을 여는 계기였다. 또한 앞으로 지회 발전을 위한 지부장의 역할과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의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속초시지부

제7차 정기총회 개최

새 지부장 선임 및 지부발전 위한 결속 다짐



속초시지부(지부장 정연선)가 11월 12일 속초시에 위치한 아남프라자 연회장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신임 임원진과 지부장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속초시지부는 앞으로 지부 발전과 회원들간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연선 신임 지부장은 "속초시 제과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회원과 임원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총회에는 중앙회 조병천 수석 부회장과 신동균 부회장, 최호근 강원도지회장 등이 참석해 속초시지부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협회 임원 이외에도 제과업계 인사 및 회원들이 초청돼 새롭게 시작하는 속초시지부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양주시지부

과우회 단합대회 개최

부부동반 동반 통해 회원간 결속 다져



남양주시지부(지부장 박성구)는 10월 12일 포천시 산정호수에 위치한 명성산으로 등산을 다녀왔다. 이번 동반은 협회 모임인 과우회 주최로 이뤄졌으며, 회원 부부동반으로 진행돼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등산을 통해 심신을 다지고 서로간의 친목을 다졌다.

계기가 됐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등산을 통해 심신을 다지고 서로간의 친목을 다졌다.

안양시지부

가을 아유회 개최

회원 50여 명 참가 화합의 계기 마련



안양시지부(지부장 이호식)는 10월 23일 강원도 한계령 및 주문진으로 가을 아유회를 다녀왔다. 협회 회원 및 임원 50여 명이 참가하여 강원도 지역의 풍경을 돌아보며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소년원을 찾아 400여 명의 원생들에게 팥빙수를 만들어주는 선행을 베풀어 업계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군포·의왕시지부

지부 체육대회

지부발전 위한 의견 교환 및 친목 도모



군포·의왕시지부(지부장 오재수)는 지난 10월 19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협회 회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족적인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회원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 지부발전을 위해 나아갈 발전적인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관복 기능장

전주KBS <아침마당전북>에 출연

30년 제과 인생 따뜻하게 전하

전북 지역 최초 기능장인 이관복 씨가 지난 11월 1일 전주KBS <아침마당전북>에 출연해 30년 제과 인생을 회고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반려자인 김정옥 씨가 함께 출연해 제과점 직원에서 대학강단에 서게 될 때까지 성실함으로 일궈낸 이관복 기능장의 30년 제과 인생을 담담히 전했다.

(사)대한제과협회

최인수 사무총장 별세

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최인수 사무총장이 지난 10월25일 새벽 3시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최 최인수 총장은 보건복지부를 거쳐 지난 2000년부터 협회 사무총장을 맡아 4년 동안 근무했다.